

# 거대한 조각의 파괴를 보며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지** 난 문민정부 때 고속철도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이 맞붙은 적이 있다. — 두 나라 모두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수주권을 따내려고 안달이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많은 한국인들은 환영을 했고 이를 계기로 해외에 나가 있는 약탈문화재를 찾아 와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외교장각 도서반환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고 외교장각 도서 반환을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한 프랑스인이 애국자의 한 모범으로 한국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외교장각 도서는 반환되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는 프랑스인들이 외교장각 도서를 주기 싫어서 지연작전을 펼치는게 아닐까 의심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치는게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프랑스로부터 외교장각 도서를 받아내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10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 석불을 파괴했다고 해외언론들이 연일 비난을 올리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 정권의 석불파괴 이유가 단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회교율법에 충실하려다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코란에 충실하려는 탈레반 정권의 지도부가 다른 회교국가들조차 우려하는 일을 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다른 회교국가인 중동국가들이나 파키스탄마저 탈레반 정권을 비난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내 다른 종교의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여기에 한국도 가세를 해서 우려를 표시하며 문화재 보호를 외치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인류 범죄행위라고 말이다. 문화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는지 가치를 짚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구한 전통의 나라라고 말한다.

곳곳에 문화재들이 널려 있어 이를 관광상품화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문화와 관련하여 몇몇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직 나는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제대로 된 목록 하나 본 적이 없다. 어쩌다 마주친 문화재 앞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수준에 혀를 찰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어떤 문화재는 바로 옆에 쓰레기 무더기가 있고 다른 문화재는 제대로 보호가 안되어서 사적지정을 취소해야 할 판이다. 멸절하던 문화재가 보수 공사를 거치면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탈레반보다 낫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먼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잘 보존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PPFK**

